

— 1월호 Vol.6 —

한동해 포럼 Newsletter

을독

2021. 1. 25

세월 속의 통일 우주선, “유원포 홈 스페이스”에 들어오세요



정진호 회장
(한동대학교 교수)

새해가 밝았습니다. 태양력의 새해입니다. 신축년 새해는 음력 설날이 되어야 시작이니 아직은 쥐의 해 끝무렵입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음력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달의 움직임을 따라 달력을 만들었으니, 달이 차고 기우는, 밀물 썰물이 오가는, 그리고 여성의 월경 주기가 돌아오는 순환 주기가 삶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음력 속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농사를 짓고 해류를 따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태양력은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과 서양인들이 만든 태양력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일본은 국기를 태양으로 만든 일장기로 만들고 아직까지도 태양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서양인들이 더 문명적이라는 착각 속에서 양력만을 인정하고 음력을 폐지하며 설날을 구정이라 부르고 무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다시 조상들이 사용하던 음력과 설날 명절을 되찾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양의 역사에서도 두 가지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을 통해 흘러들어온 전통이 태양신을 숭배하며 다신교를 믿는 **헬레니즘 문명**이었다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3중 교차점에 위치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유일신교인 유대교가 예수 탄생 이후 기독교로 이어지면서 **헤브라이즘**이라는 또 다른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헤브라이즘 세계가 사용하던 달력, 즉 성경의 달력은 모두 음력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태양력으로 강력한 태양숭배 황제숭배를 강요하던 로마제국이 신흥 종교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하여 카타콤과 같은 지하세계로 숨어들어가게 만들었지요.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문명을 감자기 받아들이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두 문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서양을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와 달**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태양력이 강력한 힘으로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남성적 시간을 헤아린다면, 태음력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순환하는 여성적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해와 달의 두 가지 움직임에 의해 동시에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세월(歲月, 歲月)이라고 하지요. 우리 인간의 삶이 남성과 여성들의 섞임과 조화에 의해 진행되듯 세월도 해와 달의 운행의 조화에 의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던 조선말의 왕과 신하들에 의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망국에 이르렀고, 이어지는 일제시대와 분단과 전쟁과 독재와 나라를 떠나 떠돌아다니며 이민자가 되어야만 했던 이산의 아픔을 겪어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최빈국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는 수많은 뉴스를 뿌리는 경제강국 문화강국이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놀라운 방역체계를 자랑하며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휴전선을 맞대고 70년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적 비극 속에서 북한은 고난의 행군과 극심한 경제난을 무릅쓰고 핵무력을 완성하는 바람에 전세계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뉴스를 뿌리는 군사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변화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북핵문제를 동시에 꺼안고 풀어나가야 하는 세기적 숙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with **코로나** with **북핵** with **4차 산업혁명**

이제 이 위기가 우리를 묶고있던 70년 분단의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4대 강대국의 이익추구에 의해 분단을 지속해 온 그 세월 속에서 코로나와 북핵은 그 견고한 틀을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디지털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기 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K-방역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가지 요인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원포는 이 시대를 읽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되 해와 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목표지향적인 조직을 갖출 것입니다. 우리 포럼의 4대 핵심가치(Core Value)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 (unity) • 평화 (peace)
- 상생 (win-win) • 연합 (collaboration)

우리 유원포의 목표와 비전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아래에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https://youtu.be/ztbsf1w3UK0>

분명 유원포는 우리 민족의 하나됨과 연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강력한 염원을 담고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민족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연합한 남과 북이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뻗어갈 뿐 아니라 시선을 우주까지 돌리는 안목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유원포는 통일시대를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홈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세기 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증기 기관차나 자동차를 능가하는 탈것(vehicle)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 세기만에 지구의 대기권은 비행기로 뒤덮히다시피 하며 지구촌 시대를 맞이했지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대기권 비행은 여전히 평면적인 2차원 이동었습니다.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민간 우주선을 쏘아올림으로써 우주권 시대를 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1세기를 지나지 않아 우리 다음 세대는 우주촌 시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도 우주굴기를 통해 누가 우주경제권을 먼저 잡느냐 하는 싸움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주 금융의 기축통화를 장악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원포 홈 스페이스에는 다양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홈 스페이스는 마치 가상공간에 떠 있는 우주정거장 같은 홈 스테이션입니다. 그곳에 많은 기능과 목적을 지닌 스페이스 셔틀들이 도킹하여 정착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력적인 공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유원포는 다음세대에게 통일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항상 미래지향적 개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Team Shuttle



유원포의 회원,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세월을 뛰어넘는 문명사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야와 안목을 함께 키워갈 것입니다. 울독을 통해 근현대사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남과 북 우호도시를 연결하는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 기본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비전, 시야와 안목은 유라시아를 경영하는 인재들을 키우며 장차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인 우주경영의 시대까지 바라보며 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원포를 “통일 우주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당면과제, 그러나 이제 그 통일된 우리민족의 장래는 우주를 경영해야할 시대로 날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통일 우주선, 유원포의 “홈 스페이스”로 모두 들어오세요. 그 안에서 함께 통일된 우리나라의 우주경영을 꿈꾸어 봅시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력 새해를 보내고 음력 설날을 기다리며,
회장 정진호 올림

일본의 독도 왜곡교육과 한일관계



최철영 감사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I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교육의 문제점

2021년의 새해는 환하게 맞이했지만 어두운 한일관계의 개선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한일관계는 한일간 역사문제로서 일제강점기 일본의 인도적 범죄행위와 약소국인 한국의 영토침략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는 뫼비우스의 띠를 따라 달리듯 돌고 돌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인 여성 강제위안부 동원범죄와 강제이주 및 강제노동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수세적이면서도 한국침탈의 첫 희생양인 독도의 불법적 일본편입문제에 대하여는 도리어 한국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초중등 교과서에서 자국의 영토가 아닌 영역을 자국 영토로 기술하고, 타국의 영토주권 행사를 '불법'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를 교육하는 것은 올바른 사실과 지식의 전달 및 공동체적 국제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다. 더욱이 그 내용이 소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발언), 특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정의문제의 가해국이 피해국에 대하여 행하는 교과서를 통한 권위적 헤이트 스피치는 가해국의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전달되는 '폭력과 탐욕'의 교육으로서 한일간 미래세대의 갈등과 반목의 싹을 키우는 위험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내용과 관계없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폭력적 발언과 도전적 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으며, 일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고, 특히 홀로코스트나 유대인과 관련된 역사문제에 대한 스피치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일본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쟁범죄의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독일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엄격한 원칙적 접근 사례를 고려하면, 일본의 경우 특히 한일 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국가가 앞장서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가가 교과서를 통해 이웃국가를 영토의 불법점거를 자행하는 국가로 미래세대에게 교육한다는 것은 UNESCO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II

평화선 선언

한국과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본격적 불법화음은 한국 정부가 일본 어선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이 계기가 되었다. 1952년 평화선선포의 시대적 배경은 제국주의 일본의 무력강점으로부터 겨우 해방되었으나 이어진 강대국에 의한 분단과 전쟁으로 세계 최빈의 약소국 지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한국이 강력한 해양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웃국가들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는 한국만의 조치가 아닌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연안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해온 조치였다. 한국의 평화선 선언은 당시 국제해양법의 추세에 따른 것이다. 국제해양법은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자유해론(Mare Liberum:1609)과 존 셸던(John Selden)의 폐쇄해론(Mare Clausum:1635)의 충돌과 타협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즉 인접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주장과 관할권의 제한 및 공해자유의 갈등 속에서 국제해양법이 발전되어온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연안해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주장과 항행과 어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의 범위를 유지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해양강대국들의 주장이 해양폐쇄론과 자유해론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국의 영토인 독도 주변 수역을 포함하는 어로전관수역

을 설정하여 공포한 평화선에 대하여 일본이 독도편입을 위한 조치로 설명하는 것은 **첫째**, 당시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연합군 총사령부 지령으로 설정된 소위 '맥아더 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월경하여 6.25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최빈국 한국의 연안해까지 와서 행하던 일본 어선들의 폭력적이며 탐욕에 찬 어로행위의 불법성을 숨기려는 것이고, **둘째**,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주장의 근거 시작점을 1952년으로 늦추어 만에 하나 독도 영토주권문제가 국제사법법원(ICJ)에 제소되는 경우 한일 양국간 분쟁의 발생시점으로서 핵심적 기일(critical date)을 1952년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당시 국제사회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어로전관수역설정 관행에 부합한 한국정부의 행위를 어로의 문제가 아닌 영토의 문제로 왜곡시킴으로서 불법적 수역설정으로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UN해양법협약은 어로전관수역의 범위와 당해 수역에 있어 연안국의 권리를 확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제도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1952년 당시의 평화선보다 확대된 200해리까지 확장할 수 있고, 연안국의 권리 또한 어로에 제한되지 않고 해수면과 해중 그리고 해저하층토 상부에서의 생물 및 비생물 자원에 대한 권리와 과학탐사의 권리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 하층토에 대하여는 대륙붕으로서 연안국에게 주권적 개발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III

일본의 1905년 독도편입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편입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알고있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에게 독점적 대하를 조건으로 다케시마 편입 및 대하원으로 변경하도록 사주하여 불법적 영토편입을 위해 국가와 개인이 공모하는 국제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1905년 일본각의의 결정은 나카이 요자부로의 다케시마 편입 및 대하원에 명시되어 있던 독도가 한국본토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일본인들이 한국의 울릉도에 가기 위해 독도를 이용하였다는 언급을 누락함으로써 무주지 선점을 통한 영토주권 주장을 하는 경우 직접적 이해당사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통보의무의 면탈을 도모한 것이다.

다른 한편, 독도문제를 국제사법법원에 제소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의 교과서 기술은 한국의 응소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국제사회에 일본이 평화적인 영토분쟁 해결을 도모한다는 정치적 선전을 위한 것이며, 일본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국 정부의 법적 권원 없는 영토주권 주장을 국제재판절차를 거론하며 왜곡하여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응소가능성이 없다는 일본정부의 판단은 뒤집어 보면 이러한 류의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국가가 국제재판에 부탁하는 행위는 스스로 위협에 빠지는 자해행위이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IV

역사적 정의에 기초한 한일간 평화의 모색

2021년 우리는 지난 한 해 인류를 괴롭혀 왔던 코로나 19의 극복에 대한 큰 희망을 품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 19로 인해 올 해로 연기된 동경올림픽의 개최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형식적 올림픽이라도 개최를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국에 중요한 한일관계의 시금석은 다음 달 (2.22)에 있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다. 일본 중앙정부는 수년 째 중앙정부의 차관급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기념식에 참석시켜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규모인원이 참석하는 행사가 어려운 만큼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는 고위급 관리의 참석을 포기하고 시마네현은 행사를 취소한 후, 이를 계기로 향후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서 자연스럽게 한일관계 악화요인의 하나를 제거하는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작은 걸음이라도 한일간의 평화화 역사적 정의에 기초하여 진전되지 않는다면, 당장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뱀비우스의 띠를 따라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쩌다 유원포, 어쩌다 울독



임한나 회원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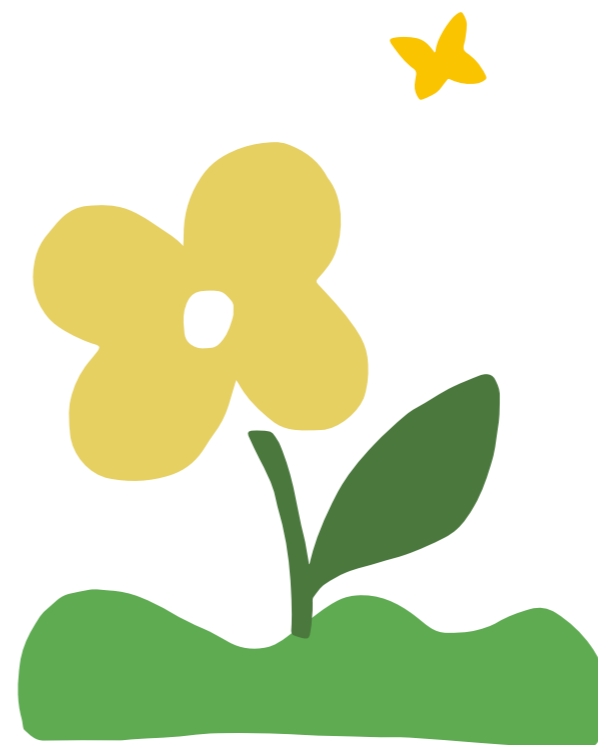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정진호 교수님의 열성팬 임한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한다면 교수님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하..!

제가 교수님을 처음 뵈는 것은 2019년도 1학기 '통일한국 개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 교수님들이 한두 강의씩 나눠서 가르치시는 팀티칭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그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을 마주 뵈는 것이 아니라 딱 한번의 강의를 들었던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교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느꼈던 기억나는 느낌은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통일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강의하셨던 교수님들 대부분이 정말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이미 감탄하고 있었지만, 정교수님은 제게 더 특별하게 인상이 남았습니다.



정교수님이 왜 그렇게 인상깊게 다가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 꿈(비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 자체는 어쩌면 흔한 일일지도 모르나 제가 교수님께 놀란 부분은, 꿈을 꾸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정말 당신의 인생을 거시고, 또 그것이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웠던 점은, 그 꿈이 통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거는 꿈의 내용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더 큰 무엇일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매진할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당시 저에게 이런 궁금증들이 들면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바로 다음학기인 19년도 2학기에 '과학기술과 인간정신'이라는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그 수업은 정말 재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만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과학사와 과학자들의 삶을 토대로 설명해주셨는데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은 중간중간 그 수업에서도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감추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쓰신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서 교수님이 서른 살 즈음에 마음에 품으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금까지 쫓아오셨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제가 교수님의 팬이 된 상태에서 교수님께서 어느날 갑자기 울릉도에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오셨고, 교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다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간 울릉도에서 제가 울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통일에 대한 이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 실제로 제가 사는 생애 동안 일어날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진행되었던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하셨던 강의와 토론 내용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남북 관계에 대한 지식이나 통일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럼 후에 든 생각은, '아, 정말 통일은 되든 안되든 상관이 없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구나, 또한 저절로 되는 것은 더 더욱 아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같이 꿈꾸고 움직이면.. 될 수도 있겠구나' 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유원포의 식구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 포럼이 구상하고 있는 더 큰 꿈(홈스페이스)에 대해 참 흥미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홈스페이스라는 구상 자체가 참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포럼의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한동대학교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서 지금은 뉴실크로드팀에 더 관심이 가는데, 앞으로 유원포를 통해서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

1월의 소식

1) 회비 납부는 회원의 의무입니다. 작년 한해는 유원포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회비와 후원금을 내 주신 50분에게 큰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매년 120,000원 또는 매월 10,000원의 회비는 모든 회원들께서 내 주심으로 회원의 멤버십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5월 1일 재창립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마음을 정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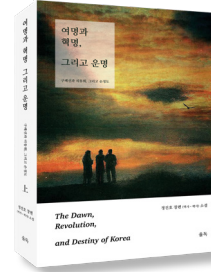
<2020년 연회비 및 후원을 하신 회원들>

반정민, 정진호, 이경숙, 허호, 류정곤, 정성모, 백원선, 연규식, 윤현중, 정환목, 유혜영, 강태호, 조규봉, 최철영, 김태우, 유승관, 서민교, 임한나, 박경진, 강경숙, 김매자, 김윤배, 김진섭, 김호용, 김환, 배기찬, 박성진, 서민태, 송영길, 윤재운, 이명훈, 이병, 이수남, 이승울, 임휘준, 이중훈, 장유경, 정문영, 조성찬, 조원상, 최문선, 최기식, 황요섭, 현권오, 현한나, 윤종현, 정연배, 안형준, 안정윤, 이소명, 익명 (50명/67명)

2) 홈페이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https://1eastseaforum.com/>

유원포 홈페이지에 모두 들어오셔서 회원 등록을 해주세요. 앞으로 회원들이 속한 각 팀(셔틀)별로, 들어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3차원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3) 정진호 회장님의 근현대 남북한 통합 독립운동을 다룬 신간 역사/력사 소설이 도서출판 울독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구례선과 리동휘, 그리고 손정도)>, 유원포 홈 스페이스에 등록하신 회원들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20% 할인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4) 오는 2월 9일에 2020년도 결산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사님들과 감사님들은 가급적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회원님들은 부득이하실 경우 위임장을 내시고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원가입 안내

① 소개글



② 입회 신청서



③ 정관



* 재정상황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